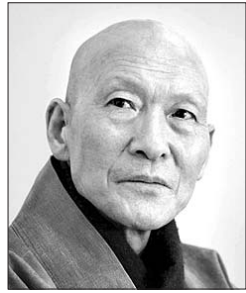


“보온병이 포탄이면 보온밥통은 핵무기냐”

변용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보온병이 포탄이면 보온밥통은 핵무기’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친북 젊은이들 북핵으로’... 올해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여당의 예산 강행처리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지면서 북한과 군·정·치권과 관련한 발언이 국민 사이에 크게 회자한 한 해였으며,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꼬집는 말도 인기를 얻었다. 또한, 법정 스님과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등 국민의 정신적 스승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타계하면서 남긴 메시지가 진한 감동을 남기기도 했다.

국내 밖에서도 많은 자연재해 및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희망, 분노의 메시지가 이어졌으며,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유명인들의 ‘실연’도 끊이지 않았다.



법정 스님



박지원 원내대표



허정우 전감독



추신수 선수

■ 국내 말말말

◇“대기업이 고(高)이자 받아서야”=이명박 대통령, 7월22일 강서구 화곡동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해 대기업이 사체에 버금가는 이자를 받는 것은 사회 정의 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며, “정부가 충청권에 안고(앞소) 없는 짚뱃(세종시 수정안)을 내놓고 안고 있는 짚뱃(원안)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데, 이를 받아들여야 비로소 될 것”=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1월 12일 대전에서 열린 ‘세종시 수정안 규탄대회’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을 비판하며.

◇“죄송한 총리, 헌금 총리, 양과 총리, ‘똥다방’ 총리를 원하지 않는다. 썩은 양파껍질을 벗기는 느낌이다”=민주당 박영선 의원, 8월25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잃어버린 600만 표를 되찾아 오겠다”=민주당 손학규 대표, 9월7일 전대 출마를 선언하며.

◇“아무리 군 미필자 모임인 정부와 여당이라고 해도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보온밥통은 핵무기에 속하는 것 아닌가”=자유선진당 변용전 최고위원, 12월 1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연평도 포격 현장 방문 당시 보온병을 ‘포탄’ 탄피로 착각한 사실을 두고.

◇“청와대가 범죄집단이나 쓰는 대포 쏘는 소리, 연평도에서 북한 대포로 얻어맞고 미국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대포로 얻어맞았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12월 4일 4대 강공사 중단 범국민대회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을 비판하며.

◇“형님 예산” ‘과매기(포항 특산물) 예산’ ‘실세 예산’만 통과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 12월10일 서울광장 농성 중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사제들이 정말로 하느님 말씀과 정의를 위해 순교할 용기가 있다면 그곳(북한)이 바로 순교할 자리다”=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12월13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지적한 정진석 추가경정 ‘골수 반공주의자’라고 한 정 의구현전국사제단을 비판하며.

◇“그런데 집안에 있는 사람이 강도로 돌변하면 어떡하느냐”=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수정안 논란 와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불러치고 다시 싸운다”고 언급한 말을 비난하며.

◇“우리가 바보가, 니들만 똑똑하냐”=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예산안 파동이 불거진 가운데 윤종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연평도 폭격현장을 찾아 폭격으로 그을린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고 주장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연합뉴스

“양과 총리는 원하지 않는다” 박영선 민주 의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개그맨 박성광

현 기재부 장관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가진 비공 개 면담에서 기획재정부가 당의 예산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분명히 항공기를 통해 폭격할 것”=김관진 국방장관, 국방장관 내정자 신분으로 12월3일 열린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어 추가 도발할 경우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히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에게 흰 쌀밥을 먹고 밀가루로 만든 빵 이랑 칼제비(칼국수)를 마음껏 먹게 하는 것”=북한 노동신문이 2월 1일 정론으로 소개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말.

◇“노 전 대통령(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령계좌가 발간돼 지살했다”=조현오 경찰청장, 지난 3월

경찰기동대를 상대로 한 특강 중.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이건희 삼성 회장, 삼성그룹 경영에 복귀하면서 사내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풀어놓은 말 빛을 다음 생애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몰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시시오”=3월11일 입적한 법정스님이 유서에 남긴 말.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가수 타블로, 10월 1일 방송된 MBC 스페셜 ‘타블로, 스타퍼드 가다’편에 출연, 일부 네티즌이 제기한 화력 위조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개그맨 박성광, KBS ‘개그콘서트’에서 올해 상반기 방송된 코너 ‘나를 슬퍼하게 하는 세상’을 통해 유행어가 된 대사.

◇“안 되는 것을 도전한다는 게 너무 슬펐다”=이규혁 스피드스케이팅 대표선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500m에서 메달 사냥에 실패하고 나서.

◇“술을 깨뜨리고 돌아올 배를 가리얏다파부 침주·破釜沈舟)는 각오로 나서겠다”=허정우 전 한국축구 대표팀 감독이 6월 23일 나이저리아와 남아공 월드컵구대회 조별리그 3차전을 대비한 각오를 밝히면서.

◇“아시아게임 우승으로 병역 특례를 받아 10년 묵었던 머슴의 짐을 털어냈다”=미국 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추신수가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후.

◇“격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괴짜 여왕’ 김연아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다음날 진행된 인터뷰에서.

◇“현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 인생에 불행은 없었다”=메이저리그 투수 박찬호가 9월 13일 메이저리그 동양인 최다승 타이 기록(123승)을 세우고 홈페이지에 옛 일기 일부를 공개하며.

◇“엄마한테 찜질방 치러주고 싶어요”=여자축구 국가대표 지소연이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여자월드컵을 마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합뉴스

■ 지구촌 말말말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외교관 수 천 명이 심장마비에 걸릴 것”=브래들리 매닝 미국 육군 일병, 1월 친구인 해커 애드ريان 라모에게 자신이 미국 외교관들 수 십만 건을 빼냈다고 자랑하면서, 이 외교관들은 최근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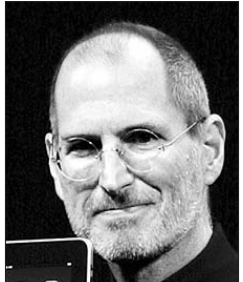
◇“모든 (도요타) 차에 내 이름이 있다”=도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豊田章男)사장, 2월 24일 미국 하원의 도요타자동차 리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

◇“빌어먹을 그 (유출) 구멍을 막아버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4월 말 멕시코만 원유 유출 차단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분노를 표시하며.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사람이고 때로 실수를 한다. 휴대전화도 완벽하지 않다”=스티브 잡스 애플 CEO, 7월 16일 아이폰 4의 안테나 수신



오바마 美대통령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내 세울 청소부 보다 낫다니”

오바마 “빌어먹을 그 구멍을 막아버려”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에게 사과하며.

◇“영어는 살아있는 언어다. 셰익스피어도 새로운 단어 만들어내기를 좋아했다”=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7월 18일 자신이 만들어낸 영타리 단어 ‘리퓨디에이트(refudiate)’로 망신을 당한 데 대해 트위터에서 항변하며.

◇“우리 33명은 대피소에서 무사히 있다”=칠레 코피아포 산호세 광산 붕괴 사고로 매몰된 33인의 광부들, 8월 22일 경도까지 뚫고 들어온 구조대의 드릴에 매달아 보낸 쪽지에서.

◇“지금 들어오는 저 청소부 이종보다 내가 아마 더 나은 세울의 세금을 낸다. 이 건 울버린 시스템이 아니다”=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10월 5일 한 행사 연사로 나서 ‘부자 증세’를 촉구하며.

◇“치! 치! 레! 레! 레!”(칠레 매물광부 구조팀, 10월 13일 매물 69일만에 캡슐을 통해 생존 광부 33명을 1명씩 지상으로 끌어올릴 때마다 외친 칠레 응원구호).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함께 어울려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10월 16일 무슬림 등이 주민을 포용하려는 독일의 다문화 사회 정책을 평가하며.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중국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10월 25일 한국전쟁 참전 노병들과의 좌담회에서, 이 발언으로 한국 등이 크게 반발하자 중국 측은 ‘침략’이 한국의 복침이 아닌 미국의 중국 침공 가능성에 대한 언급임을 시사하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총리 취임 후 지금까지는 임시면허였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자신의 색깔을 내고 싶다”=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12월 12일 도쿄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서 취임 6개월을 즈음해 향후 각오를 나타내며. /연합뉴스

한정식 전문 레스토랑
아리랑하우스에서 맛있는 떡국 드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날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해 부족했던 점을 채워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번지 모라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락 www.geumsoo-2111.com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CINUS**

상무점 | 창도시향 영화시향 콜롬버스시네마 | 아남점

1관	쓰리데이즈 (15세)	1관	나니아연대기(전제)/헬로우고스트(12세)
2관	제제한 로맨스 (18세)/김중욱 찾기(12세)	2관	황해 (18세)
3관	황해 (18세)	3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전제)
4관	황해 (18세)	4관	황해 (18세)/세미의드벤처(전제)
5관	나니아연대기(전제)/투어리스트 (15세)	5관	쓰리데이즈 (15세)
6관	황해 (18세)/세미의드벤처(전제)	6관	헬로우고스트 (12세)
7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전제)	7관	제제한 로맨스 (18세)/김중욱 찾기(12세)
8관	세미의드벤처(전제)/헬로우고스트(12세)	8관	투어리스트(15세)/세미의드벤처(전제)
9관	헬로우고스트(12세)	9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전제)
10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전제)	10관	황해 (18세)

상영권연결 방법 - (1번 or 2번) - 0번
 ☎ 1588 - 7941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MEGABOX 최고급관
 1관 황해 (18세)
 2관 헬로우고스트 (12세)
 3관 김중욱 찾기(12세)
 4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전제)
 5관 헬로우고스트 (12세)
 6관 제제한 로맨스 (18세)
 7관 쓰리데이즈 (15세)
 8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전제)
 9관 나니아연대기:세벽중정의 황해(전제)
 황해 (18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CINUS
 1관 황해 (18세)
 2관 헬로우고스트 (12세)
 3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전제)
 4관 세미의드벤처(전제)
 5관 제제한 로맨스 (18세)/김중욱 찾기(12세)
 6관 투어리스트(15세)/나니아연대기(전제)
 7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전제)
 황해 (18세)

복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색깔있는 영화시향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